



미국 원칙중심준비금(PBR) 도입 영향¹⁾

채원영 연구원

2017년 1월 1일 미국의 새로운 부채평가방식인 PBR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음. A. M. Best는 2017년 경험생명표 도입과 해약률 적용으로 순보험료방식 준비금은 PBR 제도 시행 이전보다 감소할 전망이며 보험회사의 캡티브 이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또한 PBR이 회사별, 준비금 평가 시점별로 상이해질 수 있어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수정이 예상됨

■ 2017년 1월 1일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 National Association Insurance Commissioner)는 새로운 부채평가 방식인 PBR(Principle Based Reserve: 원칙중심준비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미국 보험회사들은 2020년 1월 1일까지 PBR을 구현해야 함

- 미국은 PBR 도입에 있어 신계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3년간의 준비기간(transition period)을 제공하며 적용 제외 테스트를 수행하여 감독상 필요한 계약에 대해서 PBR을 적용함
- PBR에 따르면 최저준비금은 순보험료식 준비금(NPR: Net Premium Reserve),²⁾ 결정론적 준비금(DR: Deterministic Reserve),³⁾ 확률론적 준비금(SR: Stochastic Reserve)⁴⁾ 중 하나로 결정됨 - 확률론적 평가 예외 처리 테스트와 결정론적 평가 예외 처리 테스트를 거쳐 위의 세 가지 준비금 중 하나를 사용함⁵⁾
- PBR의 복잡성과 세법상 책임준비금(tax reserve)⁶⁾ 수준에 관한 불확실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참여

1) A. M. Best (2017. 6. 30), "Principle-Based Reserves Here at Last?", <http://www.ambest.com>

2) 순보험료식 준비금은 표준화된 수리기반의 준비금 산출방식으로 준비금 산출에 필요한 사망률, 이자율, 해약률 등이 감독 당국에서 제공하는 가정을 사용함. 따라서 현 감독관식 책임준비금 평가 방식과 유사함

3) 결정론적 준비금은 미국 국고채 수익률과 해당 회사의 투자수익률 경로를 이용하여 산출된 단일 경제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현금흐름을 사용함

4) 확률론적 준비금은 1,000~10,000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산출한 시나리오 준비금의 CTE(Conditional Tail Expectation)70으로 산출함

5) 확률론적 평가 예외 처리 테스트와 결정론적 평가 예외 처리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AIC(2016. 8), "Valuation Manual" 참조

는 저조한 것으로 평가

■ 순보험료식 준비금은 제도 시행 이전보다 감소할 전망이며 보험회사의 캡티브(Captive Insurance Company)⁷⁾ 사용도 감소할 전망이며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회사 비중은 2.8%임

- 순보험료식 준비금은 2017년 CSO(Commissioner's 1958 Standard Ordinary) 생명표 개정과 해약률(lapse rates) 사용 등으로 현재 준비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정기보험의 경우 상당한 준비금 감소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 PBR 제도 도입으로 과도한 준비금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원보험회사의 캡티브 및 재보험사로의 준비금 출재는 감소할 수 있으나⁸⁾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 이는 PBR을 통해 산출된 준비금이 여전히 경제적 준비금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많기 때문
- A. M. Best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 2.8%를 차지하는 285개 기업이 면제 요건을 충족
 - 중소보험회사의 경우 일정조건 충족 시 PBR 도입 면제가 가능함

■ 또한 평가시점에 따른 준비금 변동성 확대, 회사별 상이한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PBR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PBR 도입에 따른 회사별 상이한 가정과 미래가치 평가일로 회사별 준비금 변동성이 확대될 것임
- 또한 준비금을 재보험으로 출재하는 회사의 경우 가정에 따른 준비금 변동성 확대로 적절한 출재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PBR 도입에 따른 NAIC의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한 한 회사의 경우 재보험 출재 후의 준비금이 재보험 출재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⁹⁾
- 규제 당국 또한 회사별 상이한 가정으로 회사별 준비금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 이로 인해 제도 시행 경과에 따라 PBR 제도의 지속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있음
- 한편 A. M. Best는 PBR이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kiri**

6) 세법상 책임준비금(Tax reserve)은 국내의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NAIC의 감독관식 책임준비금에 대응하여 미국 세무 당국이 인정하는 준비금임

7) 캡티브는 모기업 및 모기업 집단의 위험을 전속으로 담보하기 위해 설립된 보험자회사임

8) 1990~2000년대 보험업계의 보험인수 및 위험 분류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법정준비금(statutory reserving requirements), 즉 경제적 준비금은 개선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준비금을 필요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였음. 이에 보험회사는 캡티브 등에 실제 보유 위험 이상으로 평가되는 위험을 출재하여 준비금 적립 부담을 경감하였음(Milliman(2015, 2), "Life ILS: 2014 year in review and looking ahead to 2015")

9) CIPR newsletter(2017, 3), "Principle-Based reserving Pilot Project and Implementation Process", <http://www.naic.org>